

배꽃가루 채취단지,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

나주배원예농협 매입 땅 농지법 위반...정부·시 보조금 못받아 조합원들 "무책임한 행위" 비난...원협 "조정 서두르다 발생"

나주배원예농협이 국내 최초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배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이 예산만 낭비한 채 무산돼 논란이다.

특히 원협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하며 수억원대의 농지를 원협명의로 매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나주배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나주배 원예농협은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배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배원협은 지난 2014년 단지조성을 위해 4억8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한 땅은 공산면 동촌리 일대 2만5788㎡(7800평)다.

배원협의 배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면서 매년 빛어지는 불량 꽃가루 공급 사태를 막겠다는 목적을 담아 추진됐다.

하지만 배원협이 매입한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사업비 중 정부 보조금(50%)과 시 보조금(30%)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사업도 무산됐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지난 5월 농지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등 단체도 과실수 수분용 꽃가루 채취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배원협의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올 5월 이전까지 협동조합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관련 토지대장에는 2015년 1월 5일 나주배원예농협협동조합으로 소유권 이전이 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5월 29일 과수 수분용 꽃가루생산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나주배원예협동조합이 2015년 1월 조합명으로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용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나주배원협에 조합원들은 "농지법도 모르고 농지를 매입한 배원협에 무책임한 행위로 소중한 조합원들의 재산만 축냈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배원협은 현재 매입한 땅을 매각에 나서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



나주배원예농협협동조합이 배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일대 농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가 매각이 되더라도 원협이 지난해 3월 식재한 추황 등 묘목 2000주는 수분수용으로, 다시 파낼 수 밖에 없어 묘목 구입비용과 비료, 관리비용 등 3000만~4000여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가기 때문이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해마다 2000여 농가에서 모두 10억원 안팎의 꽃가루를 구입해 쓰고 있으나 수입산 불량

꽃가루로 배농사를 망치는 사례가 많다"면서 "불량꽃가루의 악순환을 종식하고 건강한 국산 꽃가루를 하루라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꽃가루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나주는 2000여 농가 2391ha의 면적에서 연간 5만 여톤의 배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배 주산지다.

승촌보 관광객도 영산강 유람 가능

주말·휴일 황포돛배 운행
나주대교까지 하루 6차례

나주지역 대표 체험관광 상품인 황포돛배가 승촌보를 찾는 승객도 승선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했다.

나주시는 "오는 8일부터 주말과 휴일에 하루 여섯차례에 걸쳐 승촌보에서 나주대교 취수탑까지 왕복 운항하는 영산강 황포돛배 노선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영산강 선착장을 출발한 영산강호는 승촌보 선착장까지 갔다가 머무르지 않고 돌아와 승촌보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못했다.

나주시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주

말에 영산강 문화정터와 직거래장터를 찾는 관광객, 오토캠핑족과 자전거 라이더들이 급증하면서 승촌보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황포돛배를 활용한 배길 체험과 영산강 은빛 역새를 나주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해서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 황포돛배는 ▲12인승 빛가람 1.2호 ▲49인승 나주호 ▲96인승 왕건호 ▲83인승 영산강호가 영산포 선착장에서 한국전원염색박물관까지 운항하고 있으며, 지난해 3만1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지난달 말 열린 택시업계 간담회 모습.

'100원 택시' 6개월간 12만여명 이용

135개 마을 5만여회 운행
교통사각지대 해소 큰 기여

나주시가 교통불편 지역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100원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00원 택시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135개 마을에서 연 5만5444회를 이용했다.

택시이용권 1매당 평균 2.2명이 탑승해 12만명 이상이 이용했다. 시행 첫 달인 2월 82%였던 이용률도 크게 늘어 7월에는 90%를 넘어섰다.

매월 6000여만원이 이용요금으로 택시업계에 지급돼 경영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주민 반응도 78%가 '매우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주로 병원과 시장을 가는데 100원 택시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6기 강인규 시장의 선거공약이

기도 한 100원 택시는 지난해는 23개 마을로 한정됐으나, 올해는 133개 마을도 늘리는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나주시의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우수기관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개인택시나주시지부와 법인택시 대표들도 최근 간담회에서 100원 택시의 완전한 정착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친절운행 등에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김정안 나주모범운전자회 회장은 "100원택시 시행으로 빈차 대기시간이 줄면서 30% 이상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100원 택시는 버스소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133개 마을, 318가구에 택시 이용권을 매월 4장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 이용권을 활용하면 읍면동 소재지나 버스터미널까지 100원으로 갈 수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U-15 전국 중학 야구대회 성황리 폐막



광주 진흥중 등 리그별 우승

'2016 U-15 전국유소년 중학 야구대회'가 나주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전국 102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6 U-15 전국유소년 중학 야구대회'는 광주진흥중, 부산 센텀중, 경기도 매송중, 서울 송암중이 각각 리그별 우승을 차지했다.

나주시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이어진 국내 최대의 유소년 야구 대회는 대한민국 야구를 견인할 우수선수 발굴은 물론 8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야구장과 주변 편의시설을 정비해 국내 최고의 저류지 야구장으로 육성하고, 각종 야구대회를 유치하여 야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침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립도서관 아동연극 공연 호응



어린이 800여명 관람

나주시립도서관은 "최근 한전 KDN 빛가람을 에서 5~7세 어린이 8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연극 '굴러라 굴러라 호박'을 공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극이 아닌 뮤지컬 형식의 공연으로 소리와 시각적 효과를 더해 어린이들의 몰입 및 호응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동열 나주시 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기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달인 9월 한달간 어린이 도서관 체험, 찾아가는 동화구연교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 남구 빛고을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 상권이 확보된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문의 062) 676-4006

010-5681-4015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망!
- 전세값으로 새아파트 사재!
- 계약금 5% (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평 / (구)30평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1,900만원)

분양문의 **351-4610** (062)

회사보유분 특별분양!